
언어구분 KOR 논문구분 원저/구연 논문분야 고관절

논문제목 노인에서 발생한 고관절 골절 환자의 사망율 및 사망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

영문제목 **Incidence and Influencing Factors Associated with Mortality in Elderly Patients with Hip Fracture**

발표자 이준환 책임저자 김영호

저자 이준환, 황규태, 김이석, 김영호, 최일용

기관명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

서론 :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인 고관절 골절의 발생이 증가되고 높은 사망율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. 저자들은 65세 이상 고관절 골절 환자의 사망율을 조사하고 사망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.

재료 및 방법 :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인 고관절 골절의 발생이 증가되고 높은 사망율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. 저자들은 65세 이상 고관절 골절 환자의 사망율을 조사하고 사망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.

결과 : 수술을 시행 받지 않은 환자는 69명(19.6%),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는 282명(80.3%)이었다.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은 69명은 동반 질환으로 인한 수술적 치료의 위험도가 커서 환자와 보호자가 수술적 치료를 포기한 경우가 27명(39.1%), 경제적 이유로 수술적 치료를 거부한 환자가 42명(62.3%)이었다. 전체 환자의 고관절 골절 수상 후 1년, 2년의 사망률은 각각 18.5%, 37.1%이었으며 이중 수술을 시행 받은 282명의 사망율은 각각 12.4%, 31.6%이었고 수술을 시행 받지 않은 69명의 사망율은 각각 43.5%, 59.4%로서 수술을 시행 받은 군에서 유의하게 사망율이 낮았다. 수술 방법 및 골절 부위에 따른 사망율의 차이는 없었으며, 수상 후 3일 이전에 수술을 시행한 군과 수상 후 3일 이후 수술을 시행받은 군의 사망율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수술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호흡기계 질환과 신장 질환이 동반되거나, 동반 질환이 3개 이상인 경우 사망율이 유의하게 높았다.

결론 : 노인의 고관절 골절에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사망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되었다. 그러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, 만성 신부전이 동반된 경우나 동반된 질환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사망율이 높으므로 주의를 요한다.

acknowledgment :

노인, 고관절 골절, 수술적 치료, 사망율
